

식약청 가짜벌꿀 제조업자 적발

- 지하수에 설탕과 효소제 첨가해 벌꿀 제조
- 양봉협 식품위해사범 처벌 강력 촉구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설탕으로 가짜벌꿀을 판매한 제조업자를 적발했다고 지난 12월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2008년 6월초부터 10월 말까지 전북 완주군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에 설탕과 효소제(인버타제, invertase)를 첨가하여 약 8억원 상당의 가짜잡화벌꿀 1,391드럼(400,608kg)을 만들어 판매한 제조업자를 적발하고, 가짜벌꿀을 구입한 경기도 안성의 000농산에 대해서는 제조과정 사전공모 여부 수사 및 보관중인 가짜꿀 810드럼(233,280kg)을 압류했다는 것이다.

한국양봉협회는 지난 11월부터 식약청과 함께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선량한 양봉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가짜꿀 제조업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벌꿀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양봉농가 계도 및 소비자 홍보(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기사 참조)에 주력했다. 특히 양봉협회는 이러한 문제가 자주 언론에 공개되면 결국 피해자는 양봉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 우려됨에 따라 협회에서는 정부와 협의하여 대책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식약청과 검찰청에 건의하여 2차 언론 발표를 자제해 줄것을 당부했다. **양봉**